

배수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 줄인다

전남도 국비 898억원 투입...2025년 6월부터 사업 착공 목표 17개 시·군 42개 지구 5700ha 대상 상습 침수 구역 배수 개선

전남도가 국비 898억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배수 개선 사업에 나선다. 올해 사업 대상은 17개 시·군 42개 지구, 5700ha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5억 원 늘어난 규모다. 배수 개선사업은 우기철 태풍이나 집중 호우 시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후되거나 노후한 배수시설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돼 지방재정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작 농업인은 침수 부담과 걱정이 줄고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안정적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배수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17일 수립된 기본계획 13지구의 경우 수해 면적 1375ha에 총사업비 1806억원이 투입된다. 13지구는 광양 금이, 나주 영산, 담양 성월, 고흥 내봉, 화순 도곡, 강진 도암, 해남 고천암2, 영암 방축, 무안 정망, 무안 석용, 함평 용흥, 진도 명

금, 진도 지산지구다. 오는 3월부터 실시계획을 착수해 2025년 6월부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본조사지구는 농경지 침수 피해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구,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나주 산호지구 등 25개 지구를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앞으로 기본조사지구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신규 착수지구 확정, 실시계획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전남의 농경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배수시설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귀어학교 과정' 교육생 모집

2월 16일까지 접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귀어를 바라는 잠재 어업인이 귀어 정책부터 다양한 수산업 기술까지 습득할 '제10기 전남 귀어학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교육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어 희망자이며,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구 강진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간 강진지원 전남 귀어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교육을 받는다. 교육 수료자에 한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 기간이 기존 5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교육생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장실습 교육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연장해 귀어인의 어촌 체험 기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형 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수산 인력을 육성하겠다"며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이 수산업 전문 기술교육을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2020년 6월 개교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중 64명(43%)이 어촌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설명회

2월 16일까지 지원기업 모집

6년 연속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공고에 맞춰 전남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순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24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실무자 등 97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변경 사항,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공고,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공고, 부정행위 예방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커리큘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다뤘다. 스마트공장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가능



하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전국 최대의 지방비 지원(총사업비의 30%)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스마트 공

장 보급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스마트공장 120개사(기초 77, 고도화 43)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기농 인증 농지 벗짚 환원 사업 첫 도입

전남도, 농업 경영비 절감 기대

7월부터 접수...ha당 25만원 지원

전남도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벗짚을 환원하면 지원하는 '친환경 벼 유기농 벗짚 환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지역 증진은 물론 농업 부산물(벗짚)의 자원화 및 재활용과 농업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0.1ha에서 나오는 벗짚을 유기농 인증 농지에 환원하면 유기물 174kg, 요소 9.3kg, 규산 252kg 등 투입 효과가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을갈이 등을 통해 유기농 인증 농지에서 생산된 유기농 벗짚을 반드시 당해 유기농 인증

농지에 환원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25만원이다. 일반 관행농법으로 재배하는 벼와 무농약인증 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유기농 벼 인증 농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벼)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벗짚 환원 예정인 유기농 인증농지 사진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벼)는 올해 사업 기간 인증갱신 등을 통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유기농 벼 인증 농지의 유기농 벗짚을 조사료 등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속·체계적 지휘로 안전한 산불 진화 나선다

전남도, 지휘책임자 대상 교육

전남도가 지난 26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로 안전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지휘관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등으로 2020년대 들어 산불 피해 면적은 10년 전보다 10배, 대형산불은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봄철 산불 방지 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기후변화로 갈수록 높아지는 동시다발 중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

불 진화 지휘관 교육을 했다. 교육 대상은 전남도, 목포시 등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산불팀장 등 산불현장 지휘책임자 50여 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불 진화 절차,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요령과 주민 대피 및 안전진화 방안 등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를 위해 산불 진화 작전도를 직접 구성하고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화하는 것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불법 정당 현수막·광고물 일제 정비

2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동시 추진

전남도가 오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계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

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워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